

천연기념물 절차를 밟았던 느티나무



지정번호 화성-37

지정년도 1982

관리기관 경기

수령 1,338년

수고 20m

흉고둘레 9.5m



경기도 화성시

항남면 증거리 468

37° 08' 31.06" N

126° 58' 28.92" E

대한민국 보호수 100개소 선정을 할 때에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이다. 화성시에서 나무나이가 가장 오래된 보호수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마친 후 해당기관의 협의 검토를 부탁드렸는데, 당시의 보호수 담당 공직자는 다른 나무로 대체하면서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. 당시에 취소 요청을 받은 보호수가 항남면 증거리의 느티나무이었다. 이 느티나무는 당시에 100개소 선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. 그런데 이후 화성시는 이 느티나무가 대한민국 현존 느티나무 중 3번째 오래도록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보호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은 바 있다. 이 느티나무는 나무나이가 1,338년의 노거수이다. 높이 20m, 가슴높이둘레 9.5m 정도이니 그 위용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. 예전에는 훨씬 더 크게 자랐는데 어느 날 벼락을 맞아 나무 위쪽이 꺾어져 날아갔다.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원래 2그루가 마치 쌍둥이처럼 나란히 자라고 있었으나 한 그루가 죽어 현재 이 느티나무만 남아 있다. 그리고 마을에는 이 느티나무 외에도 같은 크기의 나무가 2그루 더 있었다. 한 나무는 벼락 맞아

갈라져 죽었는데, 사람들이 약에 쓴다고 조각조각 떼어서 없어졌다. 다른 한 나무는 구멍이 크게 나서 여름에 나무 밑에 소를 묶어 놓으면 구멍에 들어가서 쉬곤 하였다. 그냥 내버려두었더니 점점 쪼그라지가 사그라졌다. 이 느티나무는 시골 마을의 가운데에서 오래도록 버티고 있다. 사실 좁은 골목길의 비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나무로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그늘과 휴식, 편안함과 안식을 아낌없이 주는 쉼터로 여기고 있다. 옛날에는 이 나무 아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.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였다. 한량들이 모여 활을 쏘며 놀았던 활터였다.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친근한 장소였다. 주민들은 이 마을이 처음 생길 당시 이 느티나무 주변으로 둥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해 지금의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. 이 마을 뒷산은 예전에 주민들이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올라가 쥐불놀이도 하고 둥그렇게 떠오르는 달을 보며 망월을 즐기던 곳이다. 농사의 일손이 한가한 농한기에는 명석을 함께 찌는 등 만능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오는 곳이다.

